

# 실용음악 보컬실기 교육에 관한 연구

방현승\*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hbang520@hanmail.net

## A Research on the Applied Music Performance Education of Vocal Major.

Hyun-Seung Bang\*

\*Dept of Applied Music, Dong-Duk Women's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은 국내 실용음악 보컬실기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1. 서론

1988년 서울예술대학에 실용음악과가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2010년 기준) 42개의 2년제 대학과 30개의 4년제 대학, 그리고 20개의 대학원에서 실용음악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sup>1)</sup>

20여년이 지나면서 실용음악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정착기를 지나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여 있다.

한편 실용음악과가 양적팽창을 거듭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반면, 학문적으로는 아직 보완 수정해야 할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 보컬실기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대학입시 준비과정에 관한 문제점

실용음악교육이 시작된 초창기에 보컬은 따로 실기지도도를 받지 않고 입시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기악 전공자들에 비하여 기능적인 부분을 훈련

하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는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로 분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실용음악과에 지원하는 90% 가량의 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실기지도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p>2)</sup>

대학 입학 전 실용음악교육은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은 음악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는 지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실기고사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암기식, 주입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1년 안팎의 짧은 준비기간과 ‘합격’을 목표로 하는 입시전문학원에서의 준비과정은 결국 학생들을 학문적인 관점이 아닌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다 우수해지도록 교육하여 입시에 대비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은 음악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인 학생들의 창의성, 심미성 신장보다는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단기간 실용음악을 배우는 경우, 학생들은 시험을 위한 특정 기능만을 반복을 통하여 숙달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부적응과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sup>3)</sup>

1) 이정선,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배연희, “실용음악 보컬 실기 교육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19.

3) 양은주, “실용음악과 재학생들의 대학입학 준비 성향”, 낭만음악, 제19권 제 4호

## 2.2 대학 실용음악 보컬실기교육에 관한 문제점

대학 실용음악 보컬실기교육에 관한 문제점은 교육시설, 교,강사, 커리큘럼에 대한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2.1 교육시설의 문제

실용음악교육의 실기수업은 이를 적절히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구비 되어야 한다. 실기수업에 필요한 주요시설은 일반 강의실이 아닌 연습실, 합주실이 있는데, 현 대학 시설의 경우 사설 학원과 비교하여 장비와 규모가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연습실과 합주실의 경우, 한정된 공간으로 인한 수적부족과 더불어 배치되어 있는 악기, 음향시설이 부족하고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구비되어 있는 악기(피아노)의 조율이나 수리, 교체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그나마도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많다.

### 2.2.2 교, 강사의 문제

실용음악 교육이 시작되고 10여년이 지난 1990년대 중, 후반까지는 대학에서 강의가 가능한 인적자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교, 강사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재즈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음악인들이거나 현장에서 연주활동을 하는 음악인들이었다. 해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음악인들은 그나마 몇 안 되어 수업을 준비할 여유도 없이 4-5곳의 대학을 출강하였고 현장에 있는 음악인들도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잦은 휴강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현재도 실용음악에 적합하지 않은 교, 강사의 실력문제와 다양하지 못한 음악장르, 그리고 본인의 활동으로 인해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지 못하는 수업태도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대학 실용음악과의 전공 교, 강사 확보도 현 실용음악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리적조건, 빈약한 강의료로 인한 교, 강사의 부족현상은 지방대학 실용음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리적조건, 강사료에 비해 시간과 경비의 비율이 맞지 않은 이유로 지방대학에서는 학과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에 의해 지방대학의 강사들이 부족한 것은 각 지방대학들이

갖는 한계이자 당면 과제일 것이다.”<sup>4)</sup>

### 2.2.3 커리큘럼의 문제

우리나라 실용음악 교육의 커리큘럼은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한 재즈 음악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부를 마치고 초대 학과장으로 초빙된 재즈 음악인들은 그들이 공부하였던 커리큘럼을 참고하여 교과목을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 실용음악의 커리큘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외국대학의 경우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음악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단과대학 형태의 환경이거나, 또는 Jazz Studies, Rock Department 와 같은 장르의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로만 학과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Pop, Jazz, Blues, 가요 등과 같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는 이에 맞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보컬수업 관련 커리큘럼의 경우, 인원부족,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컬전공교원이 배제된 경우가 많아 타 전공에 비하여 더욱 교육여건이 빈약한 실정이다.

## 3. 결론

### 3.1 대학입시 준비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안

현재 실용음악과 입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대학입시 실기평가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 대학 실용음악과 입시제도는 1곡 또는 2곡의 실기 곡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 대부분 한 학생당 1-3분가량의 시간이 할당되며, 이는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입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입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시를 1,2차로 나누어 실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입시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 고등학교과정에서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예능교육을 목표로 하는 예고에서도 교, 강

4) 이에스더, “실용음악교육의 동양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제7호, 2008.

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교육만으로는 입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여건 미흡하여 입시교육은 대부분 입시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1-2분의 특정부분을 반복훈련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공부하는 입시교육의 문제점은 입시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음악의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강화를 통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3.2 대학 실용음악 보컬실기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안

연습실, 합주실 등의 실기실습공간은 실용음악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실기실습공간의 부족은 학교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내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공간부족의 문제는 일반강의실을 실기시설로 개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반강의실을 실기시설로 개조할 경우 3-4개의 실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강의실의 공간 활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학교의 의지와 학과간의 상호배려를 통하여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실습조교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실습장비의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한정되어 있는 실습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실용음악 교육에 적합한 교, 강사 확보에 대한 문제는 교,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에 출강하는 교, 강사의 경우, 시간과 경비의 비율이 맞지 않아 하루 10여명(10시수) 안팎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업에 충실하기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교외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즉 좋은 교, 강사를 확보하고 그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대학 보컬전공관련 커리큘럼의 대부분은 기악전공 교수들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실용음악과가 신설될 경우, 1-2명의 교수를 초빙하여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실용음악과 전공생의 비율 중 보컬전공생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과 신설 초기에 보컬전공교수가 초빙되는 경우는 드물며 이렇게 전문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커리큘럼은 실질적으로 보컬들에게 도움이 되

는지,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의 연구와 방법은 고려되지 않은 채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기수업은 실용음악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컬전공과 연계하여 가창실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합주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개설되어 있는 보컬 합주실기의 경우도 기악전공생과 함께 하여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보컬들만 모여 공부하는 전공실기의 연장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컬실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악전공생들이 참여하는 보컬 중심의 합주실기수업 개설, 실습조교들을 활용하여 보컬합주수업에 반주를 담당하는 것, 또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합주실기수업을 보컬전공 교수가 지도하는 것 등의 방안을 통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이정선, “한국 대학 실용음악교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 배연희, “실용음악 보컬 실기 교육에 관한 연구”,(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 양은주, “실용음악과 재학생들의 대학입학 준비성향”, 낭만음악, 제19권 제 4호
- [4] 이에스더, “실용음악교육의 동양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제7호, 2008.